

신도리코, 한국후지제록스

신사업 관련 세미나 열어

신도리코, 한국후지제록스 등 OA업체들이 신사업영역을 알리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3월 18일 신도리코는 'DM 솔루션 세미나'를 개최했고, 같은 날 한국후지제록스도 '문서보안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이들 업체들은 고객들에게 자사만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접목된 새로운 사업영역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 취재 | 박지연 기자 |

신도리코, DM 솔루션 세미나 개최

신도리코(대표·우석형)는 지난 3월 18일 서울 성수동 본사에서 'DM(Direct Mail) 솔루션 세미나'를 열고 청구서를 고객 연령·성별·기호에 따라 맞춤 출력하는 DM솔루션을 선보였다.



▶ 신도리코는 3월 18일 은행·보험·증권·카드·통신업계 고객관리부문 실무자와 DM업계 관계자 1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DM 솔루션 세미나'를 개최했다.

신도리코의 고객 맞춤형 컬러 DM솔루션은 모든 고객에게 같은 정보를 담은 동일한 내용을 전하는 기존 청구서와 달리 고객 성향에 적합한 맞춤정보와 맞춤쿠폰을 컬러로 출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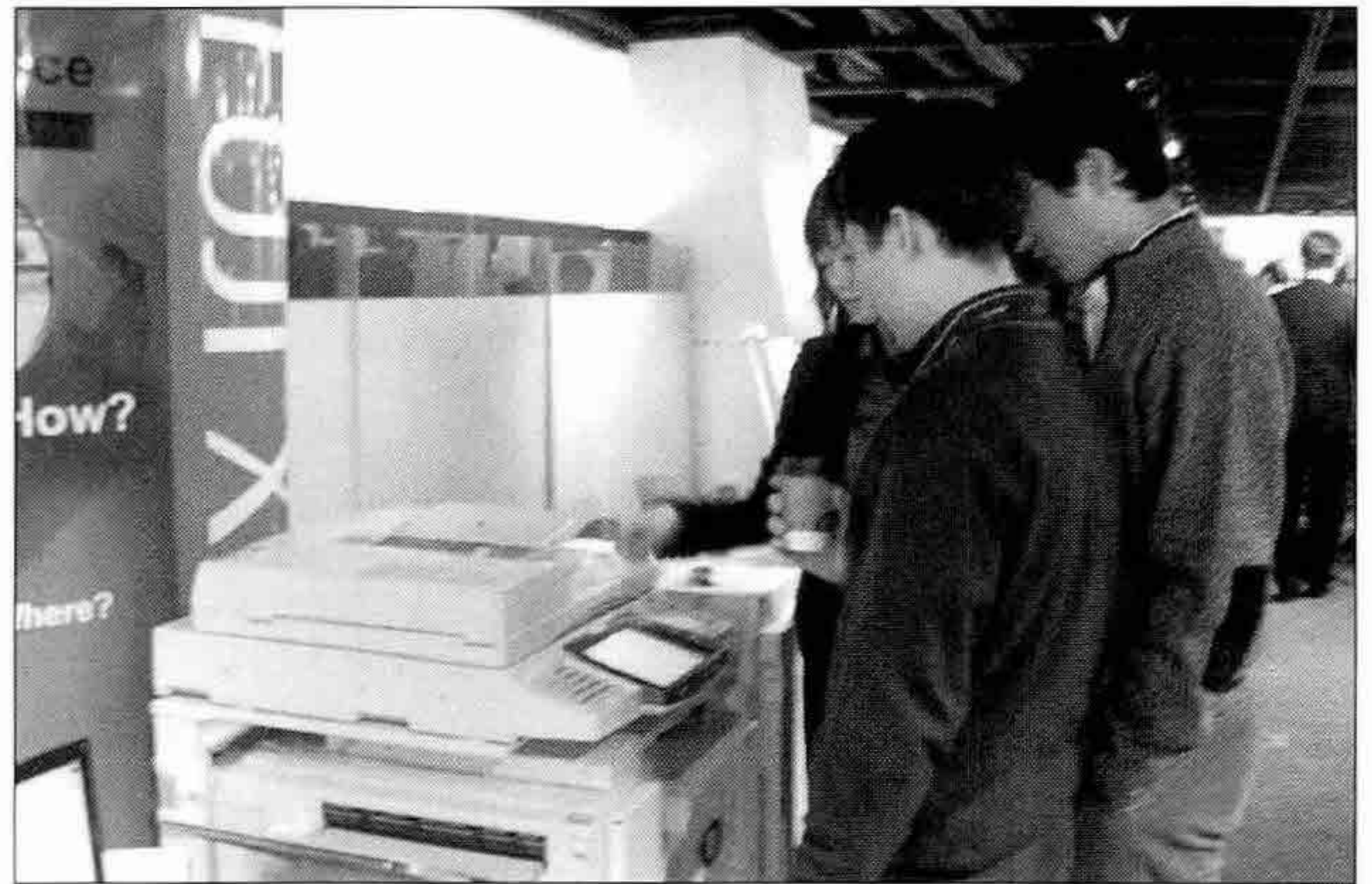
이날 세미나는 은행·보험·증권·카드·통신업계 고객관리부문 실무자와 DM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표희선 사장은 "신도리코는 프린터, 복합기 등을 비롯한 기업용 사무기기에서 하이엔드 디지털 인쇄기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전문 솔루션 업체로 성장하고 있다"며 "DM 솔루션을 시작으로 맞춤형 포토 및 학습지 인쇄, 전자책 출력 등 다양한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신도리코는 지난 2007년 이스트만 코닥과 손잡고 디지털 인쇄기 '넥스프레스'를 도입하며 디지털 인쇄 사업영역에 새롭게 뛰어 들었다.



▶ 한국후지제록스는 3월 18일 서울 정동 본사에서 보안솔루션 업체 더존ISS, 소프트캠프와 함께 문서보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 한국후지제록스 직원이 세미나장 한편에 마련된 디지털장비를 통해 보안솔루션을 시연해 보이고 있다.

한국후지제록스, 문서보안 세미나 개최

한국후지제록스(대표·정광은)도 3월 18일 서울 정동 본사에서 보안솔루션 업체 더존ISS, 소프트캠프와 함께 문서보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문서유출로 인한 피해가 잦아짐에 따라 문서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광받고 있는 '문서보안 솔루션'을 고객에게 소개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이다.

문서보안 솔루션은 기업의 문서 유출을 디지털 복합기내에서 방지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최근 들어서야 일부 기업들이 도입할 정도로 아직은 생소한 기능이다. 그러나 이 솔루션 기능의 우수성에 따라 기업용 시장에서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후지제록스외에도 신도리코, 캐논코리아 비즈니스솔루션 등 다른 OA업체에서도 집중하고 있는 분야이다.

한국후지제록스는 이날 '이미지 로그' 솔루션을 비롯하여 비인가자의 물리적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IC Card

솔루션, 출력 모니터링 솔루션 및 중소기업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beat 등 다양한 보안 관련 솔루션을 선보였다.

한국후지제록스측 관계자는 "‘이미지 로그’ 솔루션은 프린터 및 복합기를 통한 복사/출력/팩스/스캔 기능 이용시 모든 원본 문서를 서버 스토리지에 OCR 처리가 가능한 이미지 형태로 저장해 어떠한 문서를 누가 출력했는지 알 수 있다"며 "특히 기존의 출력보안 솔루션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사용자의 작업에 대한 원본 이미지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후지제록스 홍보팀 박승필 팀장은 "저장매체나 네트워크를 통한 전자문서의 유출보다 종이문서 자체의 유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서보안 솔루션은 기업의 보안 인프라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설계를 통해 문서유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서보안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문서보안 솔루션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원사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국광학기기협회에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광학세계'는 회원사 여러분들을 위한 정보지입니다. 광학세계의 회원사 동정 및 신상품 소개란은 회원사들의 홍보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인사 및 행사, 회사 업적 소개, 변경 사항, 신상품 출시 등 홍보 및 기사 게재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광학산업계 사랑방 구실을 하는 광학세계의 진정한 가치가 피어납니다.

- **연락처** : 광학세계 편집부
- **주 소** : (156-819) 서울시 동작구 사당3동 218번지 청보빌딩 4층
- **전 화** : (02)3481-8931 · **팩스** : (02)3481-8669 · **이메일** : pjy@koia.or.kr